

교빌리시교회 한국어 주일예배

2023. 4. 30. 11:28- 부활절 넷째 주일

회중찬양 - 찬양팀 인도(11:15부터)

예배의 초청 - 시편 27: 1, 5, 8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 아멘.

여는 기도 - 인도자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 아멘.

감사찬송 - 통39[새39] 주 은혜를 받으려

보통으로

1. 주 은혜를 받으려 모 인 성 도 들
2. 주 우 리 를 결 에 서 모 인 도 하 시 니
3. 주 우 리 의 방 패 와 창 검 되 시 니

주 크 신 뜻 깨 달 게 하 읍 소 서
나 거 록 한 나 라 가 이 읍 지 네
승 리 의 주 님 을 따 림 니 다

내 고 통 의 명 에 를 다 벗 게 되 니
저 마 귀 와 씨 에 위 서 다 승 리 하 시 니
큰 환 난 을 당 할 때 늘 도 우 시 니

날 구 속 하 신 이 름 찬 양 하 리
큰 영 광 주 께 돌 림 려 찬 양 하 리
승 전 가 높 이 불 러 찬 양 하 리 아 멘

기도

교회공동기도

-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취 주소서.
-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순종하게 하소서.
- 전쟁과 재해의 현장에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내려주소서.

개인기도

대표기도: 김명희 집사

주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 악에서 구하소서 /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 아멘.

어린이시간

교회소식

2023년 공동체 주제말씀: *에베소서 5장 14절 - 깨어나라!*

1. 성도의 교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2. 다음 주일(5.7) 예배는 5월 다민족연합예배로 드립니다. 예배가 9시 30분에 시작되며, 설교자는 류광현 목사입니다. 예배중에 성만찬 순서가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지하에서 어린이연합예배도 진행됩니다.
3. 우리 교회는 매년 5월 첫 주일을 <다민족공동체의 날>(International Day)로 정하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거나 우리 교회와 연결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연합예배 후에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매년 그랬던 것처럼 올해도 한국 교우들이 바베큐 식사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봉사하고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주시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4. 오늘 예배 후에 교회학교 공과공부와 티타임 교제가 있습니다.
5. 오늘 예배 후에 4월 집사월례회가 있습니다.
6.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교회옆 체육관 대강당을 2시간, 소강당을 1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금주 수요일에 성경모임(10:00/19:00)과 입교교육(17:00)이 교회에서 있습니다.
8. 다음 대표기도 순서: **장정임** 서규성 이인선 문수진 한수연 김영만 주승민 김지영 정양숙 배우리 김주연 김동석 정태훈 김원석 여경화 최소윤 예창열 박상훈 김명희

성경읽기 - 마태복음 14:22-33

22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3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24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 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르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25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26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27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28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29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32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33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설교 - "오라!"

설교후 기도 - 설교자

사랑의 주님,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당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우리에게 당신께로 "오라!" 하실 때 시선을 당신께 고정하고 담대히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 통464[새406]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 헌금봉사: 류한별, 예윤

(통일 464)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406

평안과 위로

I have found sweet rest

L. N. Morris(1862-1929)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시 56:3)

THE EVERLASTING ARMS: 10.10.10.9.REF.
L. N. Morris(1862-19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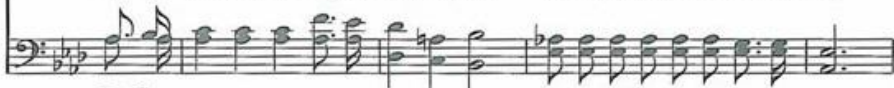
보통으로



1.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2.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함께 동행함으로
3.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4.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은혜가 총만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위태할 때에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요 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쉬운 기타코드(capo=1st) Ab→G Eb7→D7 Bbm→Am Db→C Fm→Em

봉헌/목회기도 - 인도자

영광찬송 - 통469[새412]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412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통일 469)

Far away in the depths of my spirit 평안과 위로
 W. D. Cornell, 19th Century 하나님의 평강이...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WONDERFUL PEACE: 11.9.12.8.REF.
 보통으로 (말 4:7) W. G. Cooper, 19th Century

1.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 네
 2.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길이 묻히인 보배로 다
 3.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 라
 4. 이 땅위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 나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싸 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 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 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 네

후렴

평 화 평 화로 다 하늘 위에서 내려 오 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쉬운 기타코드 (capo=1st) Ab→G Db→C Bb7→A7 Eb→D Fm→Em

축도 - 설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눈을 들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 원하는, 교빌리시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